

해수부 장관,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 현장점검

-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과 신속한 사고대응 당부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4일(화)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 등 인천지역 어선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.

황 장관은 먼저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기상특보시 출항 통제 및 위치 모니터링 상황, 사고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연중무휴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.

황 장관은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·경기해역의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 해제에 대하여 “44년 만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업인과 인천시, 경기도, 수협 등 관계기관의 협력의 결실”이라고 평가하며, “야간조업 재개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”라고 강조했다.

황 장관은 이어서 인천 연안해역에서 조업중인 꽃게잡이 어선과 무선교신을 통해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,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 자제, 항해 중 전방 주시 철저,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하였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임태호 (051-773-555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강은 (051-773-5526) |